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본격 가동

도, 조기 대선 대비...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등 74개 사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 반영 및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탄핵 확정 이후 이어질 대통령 선거 본 투표 기간 동안,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정당별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들이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통령 선거 전후 시점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주요 현안 및 국정 방향을 대선 후보 캠프에 적극 전달하고,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도가 선정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9개 분야, 7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65조2,718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발굴된 74개 사업은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초격차 미래산업 선점 △금강유역권 구형과 산업 인재 육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전북 광역 SOC 확충 △생태경제 창출 동력 확보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된 만큼, 도는 SOC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고도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이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접근성, 경제성, 국가적 상징성 등을 중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전북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차기 정부 국정방향에 전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 미래 설계도가 곧 국정과제가 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국과 14개 시군에서 약 200건의 사업을 제안받았다. 이후 실무회의

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최종 74개 사업을 확정했다.

천 실장은 “이번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 고도화와 함께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 그리고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군 및 전복연구원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준비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는 공약 비교·분석을 통해 누락된 사업을 반영하고, 필요시 새로운 사업

을 제안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정과제 실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서훈 못받은 독립운동가 발굴·지원’

김성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독립운동 미서훈자 입증자료 발굴·수집 등 내용 담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후손이 없거나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입증자료 발굴·수집 및 고증, 신청 홍보, 서훈 신청에 필요한 지원 등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도지사의 책무, 관계기관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앞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에 잊혀지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그 정신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김희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희수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



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을 초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이만호 기자

“빛의 혁명 기간, 군산시민 헌신·연대에 감사”

민주 신영대 의원 “정권교체로 보답... 제4기 민주정부 출범시켜 지역발전 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낸 빛의 혁명 기간에 헌신과 연대를 보여준 군산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신영대 의원은 “계엄군의 헬기와 장갑차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 살을 에는 추위에도 광장을 지키며 빛을 밝힌 시민, 매주 머나먼 길 마다 않고 서울로 올라와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신 시민의 용기와 연대가 모여 현정질서를 수호해냈다”고 했다.

이어 “123일 동안 윤석열 파면을 위해 서울 광화문과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비폭력 민주 시민운동으로 함께 싸워주신 군산 시민들의 헌신으로 현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선 승리를 통한 내란 세력 척결이 남아있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제4기 민주정부 출범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신 의원은 내란 사태도 종식된 만큼 지역 현안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새만금 신항에 대해 언급했다. “새만금 신항의 시작인 새만금신항

만 건설 기본계획 용역부터 현재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까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연계성이 명시되어 있다”며, “실제로 군산의 선배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신항 개발을 이끌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 본래의 취지와 효율성을 위해 군산항-새만금 신항 One-port 운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이번 대선 기간을 전북과 군산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마중물로 삼아 구체적인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은 간척지의 특성상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토지와 용수

는 물론 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며, “새만금이야말로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AI 플라즈마 센터 건설, 산업부지 확대를 통한 추가 산업·기업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신 의원은 “자영업이 융성할 수 있도록 군산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의 근대 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 비엔날레를 유치하고,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위계이션센터를 조성해 관광과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신 의원의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국체전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현대화 및 체육 인프라 확대, 또 지방정원 조성과 공공임시 상담센터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권교체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총 8건 안전심사·현장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전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나중대 의원이 발의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과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손중열 남원시의원, ‘남원시 농타작물 재배 지원조례’ 제정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은 제 271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농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남원시는 논 타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농타작물 식재사업, 농타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 농타작물 재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힘이 실릴지 전망이다.

손중열 의원은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경위, 전복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7일, 전복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손범수)와 자치경찰제도 운영 내실화와 경찰 조직 간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범수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직장협의회 회장단 등 총 20명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 홍보 방안, 자치경찰과 경찰조직 간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 경찰관의 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권을 지키고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대화하는 물론이고 누수, 균열, 마감 등 시공상 불량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